

‘평양 전기차 국제 엑스포’ 시동 “남북관계 물꼬트는 중요한 단초”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공식 논의 테슬라·현대차 등 기업참여 유도 “그린 데탕트’ 현실적 협력 수단”

세계 전기차 산업이 단순 자동차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적 협력은 통한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 흐름 속에서 북한 평양에서 국제 전기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산업 협력 확대를 꾀하는 논의가 제주에서 열렸다.

25일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는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PI EVE)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세계e-모빌리티협회(GEAN)가 주최하고,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IEVE)와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추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대환 세계전기차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 간 끊겼던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의제가 50여개국 협회 회원국들의 재승인 받았다”며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염원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반도 전기차 산업 협력의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향후 민간 주도 충전 인프라 구축과 배터리 산업 협력, 스마트그리드 기반 전력망 연계 등 전기차 전환의 실질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협력센터장은 전기차 엑스포가 ‘그린 데탕트’를 실현할 현실적 협력 수단이라고 봤다. 단기적인 환경·관광 교류에서 중장기적 에너지 인프라 협력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대환 세계e-모빌리티협회 회장이 25일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기간 중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임 센터장은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정리했다. 그는 “전기차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남북간 중심으로 협력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 전기차 협의회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세계적 평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엑스포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국제 사회에 공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특임교수는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를 포괄하는 종합 산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제주 엑스포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을 동북아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 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양을 중심으로 원산 갈마지구와 백두산 삼지연시를 연계한 분산 개최 방안과 함께, 평양~원산 간 170km 고속도로 전기차 주행 실증, 대학생·학계·연구개발자가 참여한 신기술 토론 등 학술과

실증이 결합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플렉스 그렌크 한국·몽골사무소장, 중국 ICLEI 동아시아본부 주수 본부장이 참여해 국제 협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테슬라, 현대차, BMW,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과 북한의 탄소중립 시장 선점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모델이다. 김대환 세계e-모빌리티협회 회장은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글로벌 패밀리와 함께 하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민간 협력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주에서 시작된 전기차 혁신이 한반도를 넘어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K-가전, 히트펌프 등 ‘MCE 어워드’ 석권

삼성전자 가정용에어컨 등 8관왕 LG전자 히트펌프 분야 다수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 ‘MCE 2026’에서 시스템 에어컨과 히트펌프 등 각사 핵심 제품들로 대거 수상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 전시회 ‘MCE 2026’에서 8개의 ‘MCE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2026년형 ‘AI 무풍콤보프로벽걸이’ 가정용 에어컨은 2개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모션 레이더’ 센서로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을 감지해 직접풍과 간접풍 등 최적의 기류를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모션 바람’ 기능을 탑재했다.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EHS’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MCE 2026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참석자들에게 수상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라인업에서는 ‘EHS 올인원’과 ‘EHS 캐스케이드 컨트롤러’가 나란히 상을 받았다. 가정용 EHS 실내기인 ‘DVM 하이드로 유닛’과 ‘클라임트 허브’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제품은 실내기에 탑재된 7형 스크린으로 집안 곳곳의 냉난방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도 8개의 ‘MCE 어워드’ 우수상을 받으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히트펌프(AWHP) 분야에서 혁신

신 제품이 다수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실외기와 실내기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LG전자의 공기열원 히트펌프 실외기인 ‘썬마브이 R290 노노블럭’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02에 불과한 R290 냉매를 사용한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공기열원 히트펌프 실내기 신제품인 ▲컨트롤 유닛 ▲하이드로 유닛 ▲콤비 유닛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히트펌프 실내기는 실외기와 연결되어 가정의 냉난방을 제어하고 온수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 제품인 컨트롤 유닛은 수도 배관 연결 없이 간소한 독립형으로 설계됐다. 하이드로 유닛은 백업 히터, 3방향(3way) 밸브, 팽창 탱크 등 히트펌프 주요 구성요소를 내장한 제품이다. 콤비 유닛은 200리터 물탱크까지 내장한 올인원 제품으로, 아파트나 신축 주택 등 상대적으로 설치 공간이 협소해 물탱크를 별도로 놓기 어려운 곳에서 제약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500만원대 선물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지 임직원·가족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삼성전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용량 512GB) 및 갤럭시탭 S11 (Wi-Fi-용량 256GB)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는 전통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직원 1인 및 가족당 선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을 대부분 귀국시키거나 제3국으로 대피시켰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 분쟁 지역에서는 전원 철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UAE, 카타르, 사우디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만 인력이 남아 있다. 잔류 인력은 발주처 계약에 따른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동은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인공지능(AI)과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 삼성과의 협력 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 임직원들은 중동에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플랜트,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중동 지역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보안솔루션 국제 CC 인증

녹스 기반 강력한 보안환경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2026년형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보안 솔루션이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CC 인증은 정보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전 세계 36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자체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적용해 올해로 12년간 CC 인증을 받았다. 또 올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모니터도 CC 인증을 획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은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삼성 녹스의 핵심 보안 역량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수여됐다.

검증 항목은 ▲커널 영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SIM’ ▲웹 브라우저 사용 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WBS’ ▲실행 파일의 서명을 검증해 비인가 실행을 차단하는 ‘UEP’ 이다.

이외에도 삼성 녹스는 ▲하드웨어 기반 독립 보안 구역인 ‘트러스트존’ ▲민감 정보를 보안집에 별도로 보호하는 ‘녹스 볼트’ ▲기기 간 보안 상태를 통합 관리하는 ‘녹스 매트릭스’ 등 다중 보안 구조를 통해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 녹스가 적용된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가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LNG선 등 1.3조 대규모 수주

올 들어 23억달러 이상 수주

한화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VLCC 3척 5887억원, LNG운반선 2척 7563억원으로 총 1조 3450억원 규모다.

LNG운반선 2척은 오는 2029년 5월 15일까지, VLCC 3척은 2029년 6월 29일까지 건조해 인도할 예정이다.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분할 수금하는 조건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VLC C 6척, LNG운반선 4척, WTIV(풍력발

전기설치선) 1척 등 총 11척, 23억2000만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VLC C 운임이 반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선주들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NG운반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오는 2028년 이후 다수의 LNG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같은 시장 환경에 맞춰 고부가가치 대형선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며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